

##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 성인애착, 공동양육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

이 미 나                      차 기 주                      정 미 라†

가천대학교 세살마을 연구원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본 연구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원가족 기능성, 성인애착, 공동양육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5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은 성인애착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동양육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부부공동양육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공동양육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공동양육은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과 어머니의 공동양육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어머니의 공동양육은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원가족 기능성, 성인애착, 공동양육, 사회적 유능성

\* 본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3A2053282).

† 교신저자 : 정미라, 가천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E-mail : mrchung@gachon.ac.kr

## 서론

유아가 성장하면서 유아의 생활 환경은 가정에서 유아교육기관으로 확장되고 유아의 사회적 관계망은 점차 확대되어간다. 이에 따라 유아는 책임감과 자립심을 기르며 또래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소속감, 협동심, 배려, 공감 능력 등 사회·정서적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김영선, 이숙, 2015; 박영아, 2014). 유아가 사회 정서적 능력을 발달시켜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유능성을 갖추어야 한다(권연희, 박경자, 2003).

사회적 유능성은 개인이 스스로를 존중하며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며(Feldman & Grwen, 1998) 교사와 가족 구성원, 그리고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간주된다(Raver & Zigler, 1997). 특히 유아기는 타인과 협력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여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기 위한 결정적 단계로 이 시기에 신체적 공격성은 크게 감소하고(Nagin & Tremblay, 1999) 사회적 유능성은 크게 향상된다(LaFreniere et al., 2002). 유아기에 형성하는 사회적 유능성은 이후 발달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할지를 예측하는 유용한 지표이며 나아가 삶의 성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Blair, 2002; Hart, Olsen, Robinson, & Mandlco, 1997; Ladd, 2005; Luster & McAdoo, 1996; Mendez, Fantuzzo, & Cicchetti, 2002; Mendez, McDermott, & Fantuzzo, 2002).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중요한 것은 부모 변인이다. 전생애 발

달 관점에서 유아기는 가족의 영향력이 매우 큰 시기로 부모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Bigras & Crepaldi, 2013; Webster-Stratton & Reid, 2010). 특히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어머니 변인을 탐색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곽소현, 2006; 이경희, 김영희, 신성일, 2012; Parlakian & Seibel, 2002). 어머니의 타인에 대한 애착행동은 유아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의 원형이 되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정아, 2008; 김현미, 도현심, 2004).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인 유아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7; 이하경, 2003; 김현주, 2009; Sroufe, 1983). 즉, 어머니의 지지적, 온정적, 반응적인 애착 행동을 경험한 유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행동을 반영하여 친근하고 긍정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Jacobson & Willie, 1986; 박서영, 박성연, Cheah, 2007 재인용). 이처럼 어머니와 유아의 안정적 애착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기초가 되며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이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애착은 전 생애발달동안 작용하게 되는데 Hazan과 Shaver(1987)는 아동기의 애착 패턴이 성인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밝힘으로써 성인의 애착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이인열, 이지혜, 이수정, 이상민, 2013; Diehl, Elnick, Bourbeau, Laouvie-Vief, 1998). 성인애착은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체계가 성인으로 이어져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지속된다는 Bowlby(1979)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친밀함을 느끼는 대상에게 접근하고 접촉을 유지하려고 하는 안정적인 경향성을 말한다(이시은, 이재창, 2005; 이인열 등, 2013; 함혜경, 2013; Diehl et al., 1998).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양육태도와 자녀의 애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데(김재희, 2000; 박인혜, 2012; 신지옥, 2006; 정혜승, 2000) 이는 내적작동모델에 의해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자녀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며(이경숙, 신의진, 김혜연, 1999), 이를 통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성인애착을 연구한 Eiden과 Teti 그리고 Corns(1995)는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이 양육행동과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Crowell과 Feldman(1988)도 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더 애정적이고 더 지지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최정미, 1999 재인용). 이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성인애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인애착은 애착 수준에 따라 유아의 발달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형성에도 영향을 준다(우수정, 이영, 2010; Brennan & Shaver, 1995). 안정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은 남편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하고(장휘숙, 1998) 가족기능에도 안정성을 제공하여 부부가 함께 자녀 양육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역할을 유능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토대가 된다(최미경, 김영희, 정혜숙, 2014). 특히 자녀가 유아기에 이르러 행동반경이 넓어지면서 자녀양육을 위한 부부간의 협력은 더욱 강조된다(우수정, 이영, 2010). 부부간 협력은 부부공동양육의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부부공동양육이란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가치, 참여 그리고 정서

등에 대해 서로 지지하고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박익새, 남은영, 2015; McHale, 1995). 즉, 부부가 공동양육을 한다는 것은 양육의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 나간다는 의미를 (Ahrns, 1981; Feinberg, 2003; Mchale, 1997; Schoppe-Sullivan, Weldon, Cook, Davis & Buckley, 2009; Van Egeren & Hawkins, 2004) 자녀와의 관계를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보는 것에서 나아가 전체 가족 체계로 이해(Schoppe, Mangelsdorf & Frosch, 2001)하러 한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부부공동양육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공동양육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왔으나(Abidin & Brunner, 1995; Brunelli, Wasserman, Rauh, Alvarado, & Caraballo, 1995), 최근에는 부부공동양육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부부간의 양육일치나 애정적 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전진선, 1995; 조부월, 2009)이나 또래 유능성(김민선, 김진선, 2010),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배문주, 2005; 전진선, 1995; 조부월, 2007). 즉, 부모의 협력을 통한 양육은 또래를 비롯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설경옥, 문혁준, 2006; 이지희, 문혁준, 2008; 최경순, 정현희, 1995),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부부공동양육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이 공동양육을 어떻게 지각하는 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지각하는 것으로 두 사람이 공동양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통해 살펴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양육을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공동양

육으로 규정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성인애착과 공동양육은 자신의 원가족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원가족은 개인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갖는 가족으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의 가족을 말한다(이종원, 2002; 조지은, 2006). 원가족에서의 경험들은 일생동안 자신과 타인 그리고 대인관계에 중요한 신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Bagarozzi & Aderson, 1989; Collins & Read, 1990; Satir, 1988) 개인 발달과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최연우, 2010). 특히 원가족의 기능을 살펴볼 때 Olson과 Russell, 그리고 Sprenkle(1979, 1983)은 가족 기능을 가족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족 응집성’과 상황에 맞게 가족의 규칙, 역할 및 전략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가족 융통성’의 두 차원에서 정의하였다. 원가족의 전반적 건강성은 개인이 성장한 가족 안에서 경험한 친밀하고 자율적인 관계를 통해 가족 상호간의 배려와 수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최현미, 1997). 응집성과 융통성이 잘 기능하는 원가족에서 성장한 경우, 이러한 경험의 표상은 이후 타인에 대한 애착과 양육행동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Belsky(1984)는 부모 자신이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한 애착 표상은 이후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원가족에 대한 애착표상의 안정성이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들(정윤주, 2008; Cowan, Cohn, Cowan, & Pearson, 1996; Main, Kaplan, & Cassidy, 1985; 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은 원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부모가 원부모와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이후 자녀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끈다고 하였다. 특히, 부부가 함께하는 공동양육의 경우,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협의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원가족의 긍정적 유대관계 경험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각자가 성장한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공동양육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박익새, 남은영, 2015). 이처럼 원가족에서 경험한 원부모의 애정 및 수용의 정도가 성인이 되어 부부관계 및 부모로서 유아를 돌볼 때 양육방식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유아발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가족 기능의 영향력은 여러 세대를 걸쳐 지속되는 것이다(장미자 & 조복희, 1999; Bowlby, 1969; Fonagy, 1991; Ward & Carlson, 1995; Benoit & Parker, 1994).

그동안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부모관련 변인 특히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집중되어왔다(신지옥, 2006; 정지나, 이영, 2006; 최정미, 1999; Bigras & Crepaldi, 2013). 부모관련 변인에 초점을 두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관계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특성 중 타인과의 관계 맺음의 근간이 되는 성인애착, 그리고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공동양육,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부부공동양육 인식의 근간이 되는 원가족 기능성의 관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 두 세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어머니가 지각한 원가족 기능성과 어머니의 애착 및 공동양육,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으로 이어지는 다세대 전이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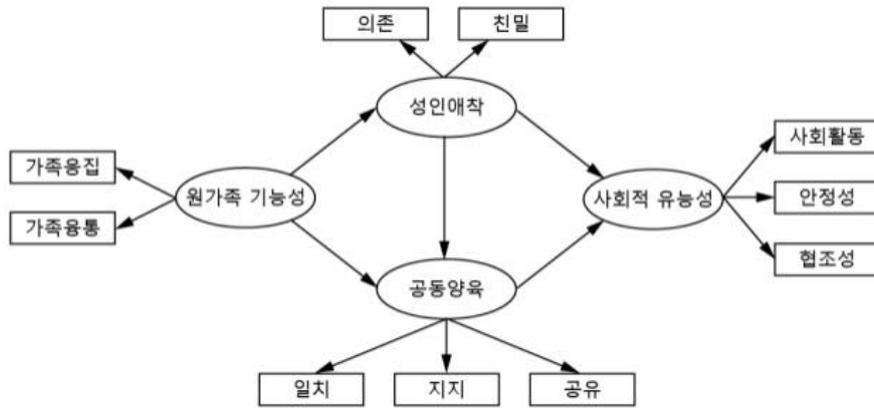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환경의 영향력이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체계론적 관점에서 세대에 걸친 가족 관계의 영향력을 밝혀내는 것은 현재 뿐 아니라 이후 세대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작용한다(전영주, 1998; Anderson & Sabatelli, 1995).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 성인애착, 공동양육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Bowlby(1979), Hazan과 Shaver(1987)가 제안한 바와 같이 원가족 기능성이 성인애착과 공동양육에 미치는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Brennan와 Shaver(1995), 그리고 우수정과 이영(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인애착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성인애착과 공동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김민선, 김진선, 2010; 이지희, 문혁준, 2008; Crowell & Feldman, 1988; Eiden et al., 1995). 둘째, 원가족 기능성이 성인애착과 공동양육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원가족 경험을 통해 어릴 적에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은 성인기 이후의 성인애착표상에 영향을 주고(Bowlby, 1969, 1979; Hazan & Shaver, 1987) 이러한 애착은 부부의 친밀감형성을 통한 공동양육을 이끌고(장휘숙, 1998; Brennan & Shaver, 1995) 이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민선, 김진선, 2010; 이지희, 문혁준, 2008; 전진선 1995; 조부월, 2009) 변인 간의 간접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그림 1)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원가족 기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성인애착 및 공동양육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을 전담하는 어머니 2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인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126

표 1. 연구대상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아	126(50.2)
	여아	116(46.2)
	무응답	9(3.6)
유아 연령	3세	17(6.8)
	4세	63(25.1)
	5세	77(30.7)
	6세	69(27.5)
	7세	25(10.0)
전체		251(100)
어머니 연령	35세 미만	52(20.7)
	35세~39세	132(52.6)
	40세~44세	55(21.9)
	45세 이상	5(2.0)
	무응답	7(2.8)
어머니 학력	2,3년제 졸업	84(33.5)
	4년제 졸업	143(57.0)
	대학원졸업	24(9.6)
어머니 월평균 가정수입	200만원 미만	4(1.6)
	200~400만원 미만	87(34.7)
	400~600만원 미만	99(39.4)
	600~800만원 미만	38(15.1)
	800만원 이상	11(4.4)
무응답		12(4.8)
전체		251(100)

명(50.2%), 여아가 116명(46.2%), 무응답이 9명(3.6%)으로 남아가 다소 많았으며, 유아의 연령은 4세가 63명(25.1%), 5세가 77명(30.7%), 6세가 69명(27.5%)으로 5세가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 참고), 어머니의 연령은 35세~39세가 132명(5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세~44세가 55명(21.9%)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 졸업이 143명(57.0%)으로 가장 많았고, 2, 3년제 졸업이 84명(33.5%), 대학원졸업이 24명(9.6%)이었다. 월평균 가정수입은 400~600만원 미만이 99명(39.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는 200~400만원 미만이 87명(34.7%)이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원가족기능성, 성인애착, 공동양육,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t=.026 \sim -1.936$ ,  $n.s$ ;  $F=.074 \sim 2.287$ ,  $n.s$ ),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지 않아( $F=.459 \sim 1.988$ ,  $n.s$ ;  $F=.543 \sim 2.778$ ,  $n.s$ ;  $F=.197 \sim 2.224$ ,  $n.s$ ) 이후 분석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 연구도구

#### 원가족 기능성

원가족 기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Olson과 Bell, 그리고 Porter(1982)가 개발한 FACES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 II)를 정선미(2011)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16문항), 가족응통성(14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총 30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응집성’은 가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가족응통성’은 가족체계가 당면하는 상황적·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가족응집성 문항의 예로는 ‘나의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서로 도왔다.’, ‘나의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모든 가족이 참여하였다.’을, 가족응통성 요인 문항의 예는 ‘나의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누구나 쉽게 자기 생각을 가족원들에게 이야기 했다.’, ‘나의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기면 함께 의논하고 의논을 통해 만족스런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가족응집성이 .883, 가족응통성이 .864, 전체 신뢰도는 .932이었다.

### 성인애착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Collins와 Read (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검사(Adult Attachment Scale)를 박은경(1993)이 번안하고 이정화(2000)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긍정적 면에 집중하여 의존척도(6 문항)와 친밀척도(6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의존척도’는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고, ‘친밀척도’는 다른 사람과의 가까운 관계에서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의존척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안하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어줄 것이다.’ 등을, 친밀척도의 경우 ‘다른 사람과 비교적 쉽게 친해진다.’, ‘누군가가 나와 친해지려 해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의존이 .713, 친밀이 .683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738이었다.

### 공동양육

공동양육을 측정하기 위하여 Van Egeren과 Hawkins(2004)가 공동 개발한 부부공동양육(Co-parenting)도구를 박재진(201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공동양육 일치(10문항), 부부공동양육 지지(5문항), 부부공동양육 공유(8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총 23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부공동양육 일치’는 자녀의 양육 시 나타나는 상호작용 중 애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배우자와 얼마나 함께 성장하고 가까워지려고 서로 노력하는지를 나타내고, ‘부부공동양육 지지’는 양육 목표 달성을 위한 배우자의 노력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지의 제공자이기보다 지지를 받는 것에 초점을 둔다. ‘부부공동양육 공유’는 양육과 관련된 노동과 시간을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각각의 균형 있는 양적 개입과 부모가 동시에 자녀의 양육에 개입하는 상호개입의 유형의 두 가지로 나뉜다.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부부공동양육 일치는 ‘육아는 나와 남편을 더 가깝게 만든다.’, ‘나와 남편은 부모로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 등을, 부부공동양육 지지는 ‘남편은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인정하고 있다.’, ‘남편은 나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지지해 준다.’ 등을, 부부공동양육 공유는 ‘나의 남편은 양육을 돕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다.’, ‘나의 남편은 내가 아이와 잠시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등

을 들 수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일치가 .861, 지지는 .869, 공유는 .833이었다.

###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Pease와 Clark, 그리고 Crase(1979)이 개발한 ISCS[P](Iowa Social Competency Scale: Preschool form)를 김정아(1990)가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성(13문항), 안정성(7문항), 협조성(5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총 25문항)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활동성’은 또래들과 놀이를 할 때 먼저 제안하거나 시작하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며 언어적 지시를 이해하고 또래에게 지도하거나 잘 설명해줄 뿐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과도 자유로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나타내고, ‘안정성’은 자신감이 있고 낯선 상황에 잘 대처하며 낯선 사람과도 잘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협조성’은 자신에 대해 만족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행동을 말한다.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사회적 활동성은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자기가 먼저 어떤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다.’, ‘친구들과 놀 때, 다른 아이에게 지시를 한다.’ 등을, 안정성은 ‘처음 만난 아이에게도 말을 건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피하지 않고 반응 한다.’ 등을, 협조성은 ‘어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잘 듣는다.’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

렇다’를 5점으로 하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사회적 활동성은 .846, 안정성은 .765, 협조성은 .656, 전체는 .855이었다.

###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 5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을 검토하고 일부 문항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9월과 10월에 실시된 경기도 학부 모교육에 참여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설문에 앞서 어머니들에게 연구목적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들에 한해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71부 중 중복체크 또는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하고 25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검증에 앞서 기본 감정을 검토하고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를 살펴본다. 그리고 측정변인이 다변량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알아보기 위한 왜도와 첨도를 산출

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AMOS 21.0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 값, TLI, CFI, RMSEA, 그리고 SRMR을 통해 평가하였다. 연구모형에서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신뢰구간 검증 방법과 소벨검증(sobel test)을 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표 2 참

고). 우선 원가족 기능성의 하위변인들은 성인 애착과 공동양육,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모두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161, p<.05 \sim r=.331, p<.001$ ). 성인애착의 하위요인은 공동양육의 하위요인 모두와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 $r=.127, p<.05 \sim r=.246, p<.001$ ), 의존 요인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는 사회적 활동에서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r=.125, p<.05$ ). 부부공동양육은 사회적 유능성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r=.159, p<.05 \sim r=.305, p<.001$ ).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자료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제시된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크기가 3과 8이하여야 한다는 기준(문수백, 2009)

표 2. 변인 간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원가족 기능성	1. 가족응집	1								
	2. 가족응통	.828**	1							
성인 애착	3. 의존	.321***	.289***	1						
	4. 친밀	.331***	.248***	.402***	1					
공동 양육	5. 일치	.270***	.276***	.166**	.216**	1				
	6. 지지	.227***	.211**	.160*	.237***	.714***	1			
	7. 공유	.188**	.161*	.127*	.246***	.647***	.580**	1		
사회적 유능성	8. 사회활동	.317***	.283***	.125*	.141*	.273**	.313***	.265***	1	
	9. 안정성	.191**	.186**	.102	.291***	.165**	.159*	.248***	.498***	1
	10. 협조성	.241***	.188**	.089	.209**	.305***	.256***	.211**	.502***	.212**
평균	3.462	3.236	3.292	3.368	3.670	3.886	3.655	3.617	3.623	3.740
표준편차	.531	.483	.563	.472	.558	.636	.677	.412	.659	.417
첨도	-.049	-.073	-.008	-.297	.944	1.073	-.476	.383	.499	.732
왜도	-.160	.171	-.209	-.194	-.475	-.544	-.057	-.004	-.414	-.029

주. N=251, \* $p<.05$ , \*\* $p<.01$ , \*\*\* $p<.001$  에서 유의함

에 준하여 본 자료는 왜도는 .004~.544, 첨도는 .008~1.073으로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으며,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모델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우선,  $\chi^2 = 55.574(df=29, p<.01)$ 으로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통  $\chi^2$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참고로 사용한다는 근거(이순목, 2000)에 따라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TLI, CFI, RMSEA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는데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TLI와 CFI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홍세희, 2000),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이고, .08 이하면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 .10이하면 보통 적합도로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그 결과 TLI=.956, CFI=.971, RMSEA=.061(L:.036, H:.084)로 모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내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273~.518로 나타나 본 측정모형들은 변별타당도를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잠재변인들을 구성하는 측정변수의 요인 부하량을 통해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요인 부하량이 .535~.980로 나타나 평균 .50이상의 부하량의 기준을 만족하여(문수백, 2009) 수렴타당도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은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모형은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이 성인애착과 공동양육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에 있어 원가족 기능성이 성인애착을 통한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과 성인애착이 공동양육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매개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은  $\chi^2$ 값, TLI, CFI, RMSEA, 그리고 SRMR로 살펴보았다. 특히 TLI, CFI, RMSEA, 그리고 SRMR 값은 다른 적합도 지수에 비해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설명력 뿐 아니라 간명성도 고려하여 선호되는 적합도 지수이다(홍세희, 2000).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 = 64.448(df=30, p<.001)$ , TLI=.944, CFI=.963, RMSEA=.068, SRMR=.051로 나타났다(표 3 참고).

표 3. 모형의 적합도

Model	$\chi^2$	df	TLI	CFI	SRMR	RMSEA
연구 모형	64.448***	30	.944	.963	.051	.068 (.045~.091)

\*\*\*  $p<.001$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분석

연구모형에서 원가족 기능성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림 2).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은 성인애착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B=.355, p<.001$ ), 공동양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126, n.s$ ). 성인애착은 공동양육과 사회적 유능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B=.457, p<.05; B=.290, p<.01$ ). 또한 공동양육은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229, p<.001$ ).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분석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원가족기능성, 성인애착, 공동양육,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성인애착과 공동양육의 간접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표 5 참고).

부트스트래핑은 반복 추출된 표본들로부터

추정치와 평균을 계산하고 추정치의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표준오차를 산출하는데 만일 제시된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2000개였고 표 5와 같이 95% Bias-corrected 신뢰구간에서 LB와 UB의 구간에 0이 포함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다중간접모델의 간접효과 검증에 있어 AMOS는 총 간접효과를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모든 개별간접효과가 제공되지 않는다(배병렬, 2015). 따라서 AMOS에서 제공되지 않는 특정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소벨 검증(Sobel test)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원가족 기능성과 공동양육 간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162, p<.05$ ), 원가족 기능성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2.353, p<.05$ ). 또한 성인애착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공동양육의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105, p<.05$ ). 원가족 기능성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성인애착과 공동양육의 간접효과에 대한 총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표 4. 연구모형의 변인들 간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B)	표준화계수 (β)	S.E	C.R
원가족 기능성	-> 성인애착	.355	.564	.068	5.227***
	-> 공동양육	.126	.133	.094	1.041
성인애착	-> 공동양육	.457	.304	.194	2.359*
	-> 사회적 유능성	.290	.261	.110	2.643**
공동양육	-> 사회적 유능성	.229	.311	.061	3.749***

주. N=251, \* $p<.05$ , \*\* $p<.01$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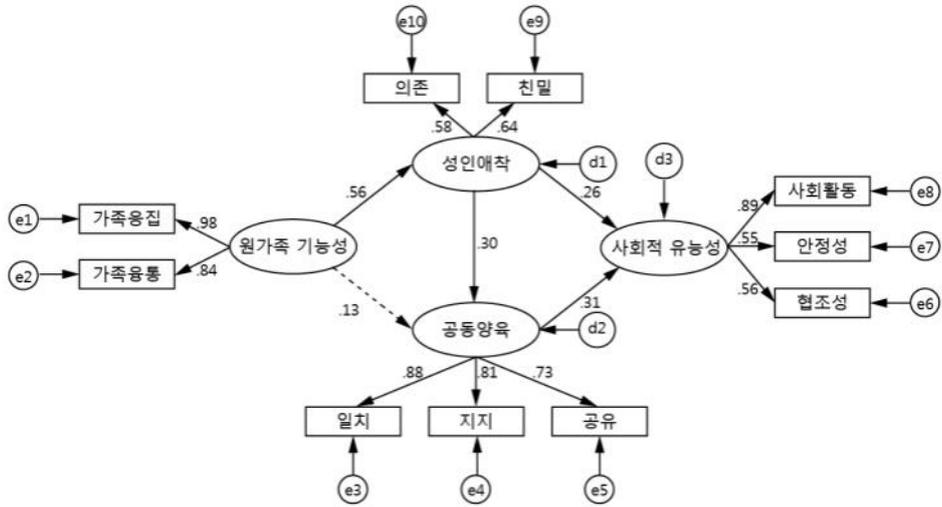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표 5.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결과

경로	estimates	S.E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strap)	
			LB	UB
원가족 기능성 → 성인애착 → 공동양육	.162*	.254	.011	.769
성인애착 → 공동양육 → 사회적 유능성	.105*	.087	.003	.317
원가족 기능성 → 성인애착 → 공동양육 → 사회적 유능성	.169**	.067	.051	.311

주. N=251, \* $p < .05$ , \*\* $p < .01$ .

표 6. 소벨 검증(Sobel test)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결과

경로	Z
원가족 기능성 → 성인애착 → 사회적 유능성	2.353*

주. N=251, \* $p < .05$

( $B=.169$ ,  $p < .01$ )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이 성인애착과 공동양육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총 간접효과도 입증되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 성

인애착, 공동양육을 선정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통해 드러난 주요 변인들 간의 직·간접 영향력 관련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효과와 관련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원가족 기능성이 성인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동양육에는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원가족에서 가족성원 간의 응집성이나 상황대처 측면의 융통성에서 긍정적 경험을 많이 하였을수록 성인애착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가족에서의 강한 정서적 유대와 유연한 가족체계의 경험은 이후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표상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이후의 인간관계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이 되어 전 생애를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Harmmen, Burge, Shannon, Davila, Paley, & Rudolph, 1995; 박은희, 최은실, 2015 재인용). 반면, 원가족 기능성이 공동양육에는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배우자와의 양육일치 및 지지, 그리고 공유를 의미하는 공동양육의 개념이 부부의 양육에 대한 가치 및 신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양육협력도 측정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경험한 원가족 기능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개별적 특성(예: 배우자의 원가족 경험, 성격적 특성 등)의 영향도 받았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포착되지 않았을 수 있다.

둘째, 성인애착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 협력이 보다 활성화된다는 선행연구들(Brennan & Shaver, 1995; 우수정, 이영, 2010)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안정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남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거나 남편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능력이 높아 궁극적으로 부부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되므로 부부가 양육에 있어 보다 협력적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성인애착과 공동양육은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공동양육이 원활이 이루어질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정아, 2008; 김현미, 도현심, 2004; Crowell & Feldman, 1988; Eiden et al., 1995)와 부부의 공동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들(설경옥, 문혁준, 2006; 이지희, 문혁준, 2008; 최경순, 정현희, 1995)을 지지하는 결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안정된 애착과 부부가 함께하는 양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간접효과와 관련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은 성인애착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작동모델의 관점에서 어머니가 아동기에 경험한 원가족의 긍정적 기능성이 어머니의 성인애착 형성에 기여하고(Bowlby, 1969, 1979; Hazan & Shaver, 1987) 이러한 애착형성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어머니 성인애착의 중요성(함혜경, 2013; Crowell & Feldman, 1988; Eiden et al., 1995)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기존의 사회적 유능성 관련 연구들이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형성에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원가족에 의해 형성된 어머니의 안정된 애착표상이 이후 유아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개인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셋째, 원가족 기능성과 공동양육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원가족 기능성과 공동양육의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인애착을 매개로 원가족 기능성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인이 되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원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애착표상에 영향을 받는 부부간의 친밀감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이어져 부부공동양육의 핵심 토대가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성인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 있어 공동양육의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성인애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양육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이 성인애착을 매개로 공동양육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머니의 안정된 성인애착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인애착의 토대가 되는 원가족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발달초기에 형성된 애착표상은 성인이 되어 부모가 된 후에도 부부관계와 자녀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연구들은 유아가 양육자인 어머니와 어

떤 애착을 형성하는지에 집중하여왔다(심숙영, 2016). 그러나 본 연구는 애착을 보는 관점을 확장하여 어머니 자신의 안정애착이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협력적 양육을 이끌어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향후 안정적 애착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이 성인애착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불안정 성인애착을 가진 어머니는 부부관계 및 양육행동에 있어 부정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부부관계 및 자녀의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성인애착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원가족의 영향에 의해 생성된 애착이 이후 대인관계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 Bowlby, 1988; Cassidy, 2001),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진 혹은 진화될 수 있다(나선영, 안명희, 2011; Gergely, Fonagy, Jurist, & Target, 2002; Wallin, 2007). 원가족에서 형성된 불안정 애착을 가진 어머니들에게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나선영, 안명희, 2011) 보다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바람직한 유아발달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공동양육의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므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양육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유아가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별화된 양육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된 양육신념 및 가치, 그리고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유아기는 가정에서 유치원 등

으로 생활 반경이 확장되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 형성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이때 부모는 유아의 모델링 대상이 되어 유아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관계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유효순, 2003; 조복희, 2006; Sroufe, 1988). 따라서 부부간의 원활한 소통과 서로간의 친밀감을 토대로 일치되는 양육관을 정립하고, 서로의 양육에 대해 지지를 표현하며, 자녀 및 양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의 공동양육은 가족의 긍정적 유대관계 형성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되고, 이를 내재화한 유아는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바람직한 상(象)을 형성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능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부공동양육은 직접적인 양육행동과 부부관계의 질, 유아의 발달에까지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박익새, 남은영, 2015; Shapiro, Nahm, & Gottman, 2011) 부부공동양육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던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원가족 기능성과 성인애착, 공동양육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가족 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부부가 한 팀으로서 양육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원가족 기능성과 양육실제에 대한 정보를 함께 포함하여, 원가족 기능성과 공동양육, 그리고 유아 발달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인구통계

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분석에서 이를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균등하게 표집하고 이에 따른 변인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기능성과 성인애착, 공동양육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유능성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다양한 발달영역에 대한 부모 영향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원가족 기능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과거 회상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주관적인 지각에 의존하였으므로 원가족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비록 가족 구성원들이 그들의 가족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지만(전춘애, 박성연, 1994), 오래된 일에 대한 지각은 ‘실제’와 관련이 적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Hovestadt Anderson, Piercy, Cochran, & Fine, 1985;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재인용) 후속연구에서는 한 성원을 통한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보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동시에 측정하여 원가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소현 (2006).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연희, 박경자 (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한국아동학회,

- 24(3), 27-44.
- 김민선, 김진선 (2010). 부모의 양육태도 일차 여부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9(2), 29-38.
- 김영선, 이숙 (2015).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1), 163-185.
- 김재희 (2000). 지각된 양육태도와 내적작동모델 애착의 상관과 세대 간 전이: 부적응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 (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변인에 관한 연구: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 (2008).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현주 (2009). 학령후기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 및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선영, 안명희 (2011).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 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331-355.
-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7). 부모의 아동기 애착,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9, 251-268.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서영, 박성연, Cheah, C. S. L. (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 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2), 29-51.
- 박영아 (2014).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에 의한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5(3), 1-14.
- 박은경 (1993).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 최은실 (2015).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1), 57-79.
- 박인혜 (2012).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가 불안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초기 부적응 도식과 불안정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익새, 남은영 (2015).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8), 355.
- 박재진 (2015). 부모공동양육과 유아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문주 (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차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5). (SPSS / Amos / LISREL / SmartPLS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서울: 청람.
- 설경옥, 문혁준 (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7), 1-9.
- 신지옥 (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 애착과 대인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347-363.
- 심숙영 (2016).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애착유형과 영유아의 사회정서유능성 및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25(1), 21-47.
- 우수정, 이영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양육협력의 매개효과 검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7), 89-97.
- 유효순 (2003).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0(2), 19-31.
- 이경숙, 신의진, 김혜연 (1999). 아동의 정신병리와 어머니의 성인애착표상 유형(AAI)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1), 103-115.
- 이경희, 김영희, 신성일 (2012).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1), 125-152.
- 이순목 (2000). 요인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이시은, 이재창 (2005).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또래 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47-963.
- 이인열, 이지혜, 이수정, 이상민 (2013). 수형자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탄력성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4), 883-902.
- 이정화 (2000). 내담자의 애착유형과 작업동맹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 (2002). 부부 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희, 문혁준 (2008). 아동의 정서성, 정서조절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4), 1-14.
- 이하경 (2003). 학령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자, 조복희 (1999). 애착의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0(1), 147-164.
-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71-82.
- 장휘숙 (1998). 애착에 대한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델, 남편에 대한 애착 및 자녀의 생활만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2), 121-133.
- 전영주 (1998). 삼세대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과 성인 자녀의 우울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22-45.
- 전진선 (1995). 부모간의 자녀 양육태도의 일치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아동교육, 4(2), 137-155.
- 전춘애, 박성연 (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2(4), 117-133.
- 정선미 (2011).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간의 관계.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정윤주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6(3), 73-85.
- 정지나, 이영 (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내적표상의 매개 효과검증. *아동학회지*, 27(4), 65-80.
- 정혜승 (2000). 어머니 자신의 부모애착 및 양육 행동과 자녀애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2006). 개정판 아동발달. 파주: 교육과학사.
- 조부월 (200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및 일치 정도와 유아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연구. *유아교육연구*, 27(4), 105-134.
- 조부월 (2009).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일치 유형 및 일치 여부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비교.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3(4), 93-119.
- 조지은 (2006). 기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정현희 (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3(1), 125-139.
- 최미경, 김영희, 정혜숙 (2014). 어머니의 원가족 부모관계와 부부관계가 유아기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3), 221-237.
- 최연우 (2010). 원가족 건강성, 부부친밀감, 고부 갈등이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미 (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미 (1997). 원가족 접근방법의 유용성과 활용방안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 205-237.
- 함혜경 (2013).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통합치료연구*, 5(1), 57-85.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bidin, R. R., & Brunner, J. F. (1995). Development of a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1), 31-40.
- Ahrons, C. R. (1981). The continuing coparental relationship between divorced spous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3), 415-428.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5). *Family interaction: A Multigenerational developmental perspective*. Allyn and Bacon.
- Bagarozzi, D. A., & Aderson, S. A. (1989). *Personal, marital family myths: Theoretical formations and clinical strategies*. New York: Guilford Pres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noit, D., & Parker, K. C.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5), 1444-1456.
- Bigras, M., & Crepaldi, M. A. (2013). The differential contribution of maternal and

- paternal values to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e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6), 843-855.
- Blair, C. (2002). School readiness: Integrating cognition and emotion in a neurobiological conceptualization of children's functioning at school entry. *American Psychologist*, 57(2), 111-127.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3), 267-283.
- Brunelli, S. A., Wasserman, G. A., Rauh, V. A., Alvarado, L. E., & Caraballo, L. R. (1995). Mothers' report of paternal support: Associations with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Merrillpalmer Quarterly*, 41(2), 152-171.
- Cassidy, J. (2001). Truth, Lies and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3(2), 121-155.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wan, P. A., Cohn, D. A., Cowan, C. P., & Pearson, J. L. (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nk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53-63.
- Crowell, J. A., & Feldman, S. S. (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5), 1273-1285.
- Diehl, M., Elnick, A. B., Bourbeau, L. S., & Laouvie-Vief, G.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Their Relations to Family Context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656-1669.
- Eiden, R. D., Teti, D. M., & Corns, K. M. (1995). Ma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marital adjust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6(1), 504-518.
-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95-131.
- Feldman, S. S., & Grwen, L. K. (1998). Conflict negotiation tactic relationships in high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3(2), 205-220.
- Fonagy, P. (1991). Thinking about thinking: Some clin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treatment of a borderline pati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2(4), 639.
- Gergely, G., Fonagy, P., Jurist, E., & Target,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London: Karnac Books Ltd.

- Hammen, C. L., Burge, D., Shannon, E., Davila, J., Paley, E., & Rudolph, K. D. (1995). Interpersonal attachment cognitions and prediction of symptomatic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3), 436-443.
- Hart, C. H., Olsen, S. F., Robinson, C. C., & Mandlco, B. L. (1997). The development of social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in childhood: A review and a model of personal, familial, and extrafamilial processes. *Communication Yearbook, 20*, 305-373.
- Hazan, C., & Shaver, P. (1987). Conceptualizing romantic love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P., Cochran, S. W., & Fine, M. (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cobson, J. L., & Wille, D. E. (1986). The influence of attachment pattern on developmental changes in peer interaction from the toddler to the preschool period. *Child Development, 57*(2), 338-347.
- Ladd, G. W. (2005). *Children's peer relations and social competence: A century of progress*. Yale University Press.
- LaFreniere, P. J., Masataka, N., Butovskaya, M., Chen, Q., Dessen, M. A., Atwanger, K., Frigerio, A. (2002). Cross-cultural analysis of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3*(2), 201-219.
- Luster, T., & McAdoo, H. P. (1996). Family and child influences on educational attainment: A secondary analysis of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data. *Developmental Psychology, 32*(1), 26-39.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 66-104.
- McHale, J. P. (1995). Co-parenting and triadic interacting during infancy: The roles of marital distress and chil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85-996.
- McHale, J. P. (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36*, 183-210.
- Mendez, J. L., Fantuzzo, J., & Cicchetti, D. (2002). Profiles of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African America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73*(4), 1085-1100.
- Mendez, J. L., McDermott, P. A. & Fantuzzo, J. (2002). Identifying and promoting social competence with African-America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consideration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1), 111-123.
- Nagin, D., & Tremblay, R. E. (1999). Trajectories of boys' physical aggression, opposition, and hyperactivity on the path to physically violent and nonviolent juvenile delinquency. *Child*

- Development*, 70(5), 1181-1196.
- Olson, D. H., Bell, R., & Porter, J. (1982). Family Adaptation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 *Minneapolis, Minn.: Family Inventories Project*, 33-57.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1), 3-28.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1), 69-83.
- Parlakian, R., & Seibel, N. L. (2002). *Building Strong Foundations: Practical Guidance for Promoting the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s and Toddlers*. Zero to Three, 2000 M Street, NW, Suite 200, Washington, DC 20036-3307.
- Pease, D., Clark, S. G., & Crase, S. J. (1979). Iowa Social Competence Scale: School-age and preschool manual. *Iowa: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 Raver, C.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363-385.
- Satir, V. (1988). *The new peoplemaking*. Mountain View,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choppe, S. J., Mangelsdorf, S. C., & Frosch, C. A. (2001). Coparenting, family process, and family structure: implications for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3), 526-545.
- Schoppe-Sullivan, S. J., Weldon, A. H., Cook, C. J., Davis, E. F., & Buckley, C. K. (2009). Coparenting behavior moderates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effortful control and preschool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6), 698-706.
- Shapiro, A. F., Nahm, E. Y., & Gottman, J. M. (2011). Bringing baby home together: Examining the impact of a couple focused intervention on the dynamics within family pla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3), 337-350.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91-106.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Eds.),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 16, 41-81. Hillsdale, NJ: Erlbaum.
- Sroufe, L. A. (1988). The role of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development. In Belsky, J., & Nezworski, T.(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18-38). Hillsdale, NJ.
- Van Egeren, L. A., & Hawkins, D. P. (2004). Coming to terms with coparenting: Implications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3), 165-178.
- Wallin, D. (2007). *애착과 심리치료* (김진숙 등 역). 서울: 학지사(2007년 원저출판).
- Ward, M. J., & Carlson, E. A. (1995).

Associations among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 M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66(1), 69-79.

Webster-Stratton, C., & Reid, M. (2010). Adapting the Incredible Years, an evidence-based parenting programme, for families involved in the child welfare system. *Journal of Children's Services*, 5(1), 25-42.

1차원고접수 : 2015. 00. 00.  
심사통과접수 : 2015. 00. 00.  
최종원고접수 : 2015. 00. 00.

##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Early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Adult Attachment, Co-parenting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ina Lee<sup>1)</sup>**

**Kijoo Cha<sup>2)</sup>**

**Mira Chung<sup>2)</sup>**

1)Sesalmaul Research Center, Gachon Univ.

2)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achon Univ.

This study aimed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perceptions on the early experiences of the family-of-origin and adult attachment, and cooperations in parenting in the current family (co-parenting), and children's levels of social competences. For the purpose, data was collected from mothers of children of 4 and 5 years, who lived in Kyeonggi province (n=251). The data was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Results revealed that first, maternal early experiences in the family-of-origin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adult attachment, while having no direct effects on co-parenting. Maternal adult attachment had a direct positive influence on co-parenting, and the adult attachment and co-parenting had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respectively. Second, mothers' adult attachmen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ow mothers perceived experiences in the family-of-origin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s, and co-parenting mediated the impact of the family-of-origin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s. Next, the effects of the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on co-parenting were mediated by maternal adult attachment, while maternal adult attachment had indirect effect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s through co-parenting.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especially focusing on the ways to improve children's social competences.

*Key words : family-of-origin experiences, adult attachment, co-parenting, social competences*